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박희백-

박희백 원장(박희백정형외과의원)이 제11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은 박희백 박사가 대한체육회 이사 및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의 국제 스포츠 발전에 공헌했으며, 3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국제 협력에 기반한 활발한 의료·학술 활동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88서울올림픽 한국 선수단 의무본부장을 시작으로 올림픽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 경기에서 의무본부장을 맡아 한국 선수단의 건강을 책임지며 한국의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세계핵전쟁반대의사회, 세계의사회 총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국제 학회회의 및 일본, 중국,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초청한 학술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학 교류에도 힘썼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박희백 박사는 태릉선수촌의 의료시설이 빈약했던 시절부터 한국 선수단의 건강을 책임져 온 든든한 공로자”라며 “한국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의사회 교류·의학 교류에 큰 공적을 쌓은 박희백 박사를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사장은 “매년 국제협력공로상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 보건 의료분야에 기여한 의료인의 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국제협력 분야를 비롯해 한국 의료계 발전 및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회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의료인들의 국제 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세계의사회장과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회장을 역임한 문태준 전 보사부장관,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처장, 김명호 연세의대 명예교수, 주일억 전 국제여자의사회장,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 노성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김동수 연세의대 교수, 박경아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교수(세계여자의사회 회장),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활의학과 김봉옥 교수,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 의료진(24명) 등이 있다. /MP저널